

2008년 3월 09일-*특주: 산 제물.

신약 성경 OUTLINE

-로마서(72)-

224.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말씀: 롬 12:1

요절: 롬 12:1

오늘은 '너희 몸을 산 제물로'란 제목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헌신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란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후 주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이 되도록 자신을 낮추어 주님께 모든 권한을 내어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의 땀과 정성, 노력과 물질, 시간을 바치는 것 이전에 우리 몸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본래 우리의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요, 본래의 주의 것인데 주께 돌려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다윗의 지휘 아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들이 힘을 다해 헌물을 바치는 것을 보고, [오 주 우리 하나님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대상29:16)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주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바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살아 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내 몸을 다 주님께 드렸기에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입, 나의 머리, 나의 신체 모든 지체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遺體)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 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롬6:13). 순서를 보십시오. *오직 너희 자신을...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헌신입니다. 우리의 온 몸을 주님께 드렸기에 나의 입이 내게 속하지 않고 내 귀도 내게 속하지 않으며 내 눈도 내게 속하지 않으며 내 손도 내게 속하지 않고 내 발도 내게 속하지 않고 내 몸도 내게 속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몸과 영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고전6:20). 현재 내가 이 몸 안에 사는 것은 청지기로서 관리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드리지 않고 자신의 소유만 드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한 참 잘 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 후에야 우리

가 드린 헌물을 받으십니다. 창세기 4장에 최초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의 기사를 보십시오.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 중에서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창4:2-4). 주님은 아벨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아벨이 바친 헌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반면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에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얻지 않고는 ‘우리의 것(소유)’를 받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의 무엇(소유)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자랑하는 이들을 주님은 가증이 여기십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살아 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영적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벧전2:5). 영적 제사장은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희생물은 바로 자신의 몸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 몸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간증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셨고, 나의 삶을 변화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럴듯한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환경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삶의 변화에 들어온 간증도 많이 들었습니다. 장로교에서도 그러했고, 선교 단체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삶’이 아니라 ‘몸’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삶이 변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시며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십니다.

핵심은 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장차 변화될 것은 우리 몸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런 몸과 같게 하시리라.](빌3:21).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몸으로 행한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상급이 결정됩니다. 주님께 자신의 몸을 내어 주지 않았던 이들이 행한 일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불타 없어질 육신의 행위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린 후에 그 몸으로 행한 행실들이 가치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하였을 뿐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고후8:5).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일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전 재산을 바치고, 젊음과 열정을 바치고, 모든 것들 다 바쳤다고 해도 먼저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진리와는 함 참 동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헌신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셨으니](갈1:4). 주님은 천사들을 내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재물을 내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헌신의 기초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놓으셨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는 것, 주님께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헌물과 희생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의 살과 피를 모두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알 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만큼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주께서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고후8:12).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성경을 펴서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이 생명과 삶의 근거입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딤후2:6).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2:20b)고 합니다.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이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기초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요, 헌신된 삶입니다.

•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이 사랑의 근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엡5:2).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사랑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걸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쓸지언정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들을 사랑하라, 네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압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는 고사하고 흉내조차 내기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기초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리신 주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형제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나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일3:16).

•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이 섬김의 근거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9:14). 주님을 섬기는 섬김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린 주님을 죽으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것 역시 주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섬김의 기초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근거입니다.**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엡2:16). 그리스도의 몸을 못 박은 그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죄인들은 영원히 화해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하나 됨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원수 된 우리들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이제는 그분께서 너희를 그분의 눈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리려고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너희와 화해를 이루셨으니](골1:22). 주님의 죽으심이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진리로 잡을 때 우리는 원수 맺음, 파당, 분냄, 다툼, 시기, 쓴 뿌리 등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용서, 화해, 위로,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 **주님의 희생은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새 덩어리가 되는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고후5:7). 육신의 악한 습관, 정욕, 탐심,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모든 죄의 누룩들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그 죽음에서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러 우리의 죄가 되시고(고후5:21), 우리의 저주가 되시고(갈3:13)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에 대한 진리를 알고 믿는 믿음없이 단지 자시의 삶을 개혁하고 행실을 바꾸어 보려는 노력할 때 성도들은 안식이 아닌 씁쓸한 고통을 겪습니다. 자유가 아닌 속박을 느낍니다. 육신과 자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를 쉽게 얽매는 죄를 벗어 버리는 방법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셨다, 희생물이 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모든 헌신의 바탕이요, 근거란 점을 확실해 두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1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롬12:1).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간청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은 짐승을 잡아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모든 제물은 죽인 다음에 드렸기에 죽은 희생물이었습니다. 죽은 희생물들은 죽은 행위들을 씻지 못하며,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거나 살리지 못하며,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날마다 율법의 규정대로 드리는 형식적인 헌물에 주님은 질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1:13-14,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가 중한 것이요, 월삭(月朔)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사1:13-14). 주님은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죽은 짐승들의 몸이 아니라 산 제물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히10: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러야 할 헌물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단지 육체로만 보면 그다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질그릇이요, 벌레들이 먹는 천한 몸이요, 해체될 장막이요, 헤어져 없어지는 옷이요, 낡은 집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우리 몸은 불의의 도구요, 마귀들의 집입니다(마12:44). 하지만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몸이 어떤 몸인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 ▶ **우리 몸은 주님의 지체이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漚體)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6:15)
- ▶ **우리 몸은 의의 도구이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

나눔께 드리라.](롬6:13b).

▶ **우리 몸은 주님의 성전이다.** [도대체 무슨 말이나?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殿)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고전6:19).

▶ **우리 몸은 주님이 값 주고 산 소유이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6:20).

▶ **우리 몸은 주님의 가지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요15:5a). 고로 우리는 몸의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열매로 맺어야 합니다.

“너희 몸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1). 살아 있는 희생물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시체를 매달지 않습니다. 사람을 산 채로 못 박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 있는 희생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느니라.](갈2:20a).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매일의 반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 대한 나의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는 영적 희생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너희도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벧전2:5).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희생물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몸이 살아 있는 희생물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롬12:1) 우리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려야 합니다(롬6:13). 우리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 형제(친구)를 위해, 자기의 아내를 위해 목숨을 언제나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찬양의 희생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히13:15).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주님의 신격과 존재감, 어떠한 심에 대해 알고 경이로움을 느끼며 그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송가나 복음 송가 몇 곡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 되심을 알고,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해 하나님다우심(Godhead)을 깊이 알 때 절로 나오는 탄성이 바로 찬양입니다.

셋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제, 헌금, 헌물은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히13:16).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요,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한 것이라.](빌4:18).

넷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희생물로 희생물을 드리며 기쁨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일지이다.](시107:22).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시116:17). 모든 일에 감사하라(살전5:18).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거나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만 삶에 놓인 환경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삶은 믿음의 현장이요, 실습터요, 일터입니다. 경험해 보

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다섯째,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을 올려 드림같이 되며 나의 손을 들어올림이 저녁 희생물을 올려 드림같이 되게 하소서.](시141:2). 성도들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러진 향입니다(계5:8, 8:3-4).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매 네 짐승과 스물네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들을 가지고 어린양 앞에 엎드리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계5:8).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써 날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살아있는 희생물들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희생물들입니다.